

생명나무를 지키는 사람들

구세군 보건사업부를 위해 함께 해 주신 소중한 마음 감사합니다.

2024년 후원자

윤진자, 강성기, 강성우, 고인환, 김봉순, 김은경, 김회경, 백수연, 서미령, 양승협, 양향숙, 윤현주, 이아영, 이영섭, 이영숙, 이천재, 조선영, 황성순, 구세군서울제일교회, 구세군아현교회, 하남생명길교회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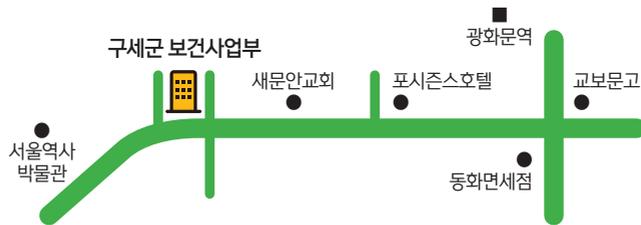
자원봉사 및 후원 방법 안내

아름다운 사회, 함께사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세군의 보건사업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저희 구세군 보건사업부 홈페이지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201-093384 예금주: 구세군 보건사업부

오시는 길



구세군보건사업부

0317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69 구세군회관 608호
TEL. 02-6364-4085 FAX. 02-6364-4083
www.aidscares.or.kr

생명나무를 지키는 사람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세군보건사업부

CONTENTS

01 / 연혁

구세군 보건사업부의 발자취

02 / 인사말

구세군 보건사업부 담당관

03 / 보건사업부가 하는 일

06 / 칼럼 1

HIV 잘 치료하고 잘 예방하기

08 / 칼럼 2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

10 / 칼럼 3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강의 모니터링을 마무리하며

12 / 2024년 주요활동-첫번째 이야기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편견차별 해소를 위해

15 / 교육 이야기 1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후기

16 / 교육 이야기 2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후기

17 / 2024년 주요활동-두번째 이야기

HIV감염인의 정서지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

19 / 솔직한 우리의 만남 1

마음을 보다듬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요

20 / 솔직한 우리의 만남 2

우리의 행복한 시간

21 / 만남을 통한 행복 1

구세군과 함께한 나의 이야기

22 / 만남을 통한 행복 2

새 봄을 위한 기도

23 / 만남을 통한 행복 3

구세군 역사박물관 탐방기

24 / 통계로 본 2024 구세군 보건사업부

‘생명나무를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세군 보건사업부에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보건사업부는 생명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들과 그 발걸음을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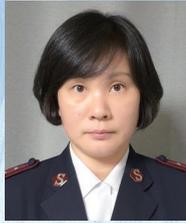
생명나무를 지키는 사람들

Winter 2024 - vol.5 발행일 | 2024. 12. 31. 발행처 | 구세군 보건사업부 디자인 | 이프루디자인랩 010-9533-3874

구세군 보건사업부의 발자취

1995	3월	국제 본영 보건부의 HIV/AIDS 촉진팀이 한국을 방문 및 한국 HIV/AIDS 사업 준비 협의
1998	12월 1일	구세군 HIV/AIDS 대책팀 결성
1999	6월 7월 11월 2일~3일	구세군 아태지역 HIV/AIDS 프로그램 초청회의 팀원 참석 부산사무소 개소 제1기 1차 구세군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2000	8월 1일	HIV/AIDS 예방 사업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유미혜 담당관 임명
2001	6월	미국 뉴욕 UNAIDS 특별 총회 한국대표단으로 참석
2003	4월	구세군레드리본센터 개소
2004	5월 11일	김병선 담당관, 김윤희 목양담당관 부임
2005	2월 28일	각 지방 AIDS 대책 담당관 임명
2006	3월 12월	에이즈 예방교육사업 위탁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예방부로 명칭을 변경, 조직 안에 9개의 지회와 서울레드리본센터, 부산침터를 두다.
2007	3월 7월 2일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사업 위탁 (질병관리본부) 신진균 담당관, 임향 목양담당관 부임
2009	1월 2월 10일	HIV 감염인 교육상담사업 위탁 (질병관리본부) 보건사업부로 명칭을 변경
2012	10월 8일	이재성 담당관, 이은경 목양담당관 부임
2014	6월	생명나무센터 개소
2017	8월	HIV 감염인 교육상담사업 위탁 종료 (질병관리본부)
2018	8월	안산결핵쉼터운영 사업 위탁 (대한결핵협회)
2019	10월 1일	최철호 담당관 부임
2020	8월 1일	최호열 담당관, 최인영 목양담당관 부임
2021	2월 1일 12월	인은영 담당관 부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사업 위탁 종료 (질병관리청)
2022	4월 1일 6월 9월	김순희 담당관 부임 구세군가재울쉼터, 서울특별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구세군서대문사랑방 업무협약 결핵예방교육 전문강사1기 양성
2023	1월 1일	조혜영 담당관 부임
2024	3월 4월	안산결핵쉼터운영사업 위탁 종료 (대한결핵협회) 대한결핵협회 STOP-TB 파트너십 가입

인사말



구세군 보건사업부 담당관 조혜영 사관

할렐루야 ~

2024년의 시작이 엇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동안 많은 분을 만날 수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를 듣고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모임, 생명나무 정기모임과 취미 및 여가 활동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 성탄축하 및 후원자의 밤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얼굴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어색한 첫 모임시간 이후로 조금씩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던 말투와 태도에 감동 가득했던 일 년이었습니다.

일년의 시간을 보내며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을 마주하며 '아, 이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그냥 보낸 시간은 아니었구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구나' 하는 뿌듯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3년부터 시작하여 24년 11월까지 월요모임을 진행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중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가 '로마'가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발걸음은 머뭇거리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선생님께서 '로마까지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자고. 그렇게 바울에게 말했다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이나 에베소 장로들도 바울을 떠나보내며 슬픔이 가득 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다른 분들도 안타깝고 슬프지만, 바울이 죽음으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접하며 다양한 생각과 감정의 표현을 해주셨지만 "함께 가주겠다"는 그 대답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자로만 기록된 먼 나라의 이야기, 옛날이야기roman 생각하지 않고 따뜻한 가슴으로 받은 대답에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약속되어진 시간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함께 웃고, 농담도 하고, 일상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즐거움과 감사함이, 따뜻함이 기다릴지 2025년이 기대됩니다.

구세군 소개

구세군은 1865년부터 지금까지 영혼구원과 사회 구원을 위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편적인 기독교 교회에 속한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특히 구세군의 사회봉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4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에서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았습니다. 구세군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이자, 가장 어두운 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을 위한 구세군 비전 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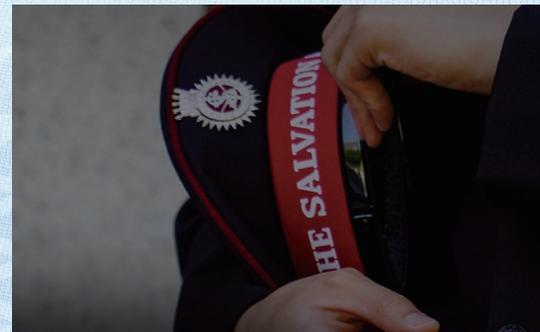
The Salvation Army Vision Statement for Health Ministry

1 구세군은 하나님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복합선교 전달자로서 가족과 함께 가능한 한 가까이 양질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며 가난한 자와 사회의 소외된 자들을 우선으로 하여 그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돌보는 중요한 참여자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2 구세군은 적당한 기술과 경험뿐만 아니라 신성한 기독교적 건강 사역에 헌신하는 건강 사역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아울러 전인적인 기독교 보건 사역을 발전시키는 일을 도모한다.

3 구세군은 복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부름 받았음을 믿고 세계에 대하여 가치적이고 실제적이고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증거인 '온전함'에 대한 증거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각 개인 및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해 헌신한다.

(국제본영 홈페이지에서 발췌)



보건사업부 소개

구세군은 HIV 바이러스가 인류에 미치는 심각한 악 영향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에이즈 예방 활동과 감염인 케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구세군은 1995년부터 구세군 국제본부 내 보건봉사부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준비과정을 거친 후 1998년 12월 1일에 한국 구세군 HIV/AIDS 대책팀을 결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보건사업부를 중심으로 전국 7개 지방에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HIV감염인 지원, HIV감염인 쉼터 및 주간보호센터(샬리홈) 운영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보건사업부는 감염인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우며 비 감염인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질병 예방 및 편견을 없애는 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보건사업부 사업 목적

가장 낮은 곳,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세군 보건사업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편견차별 해소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에이즈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예방교육
모니터링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캠페인

레드리본 (Red ribbon)의 상징

1. HIV 감염인과 환자,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보호와 관심
2. 치료제 개발과 감염인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희망
3. 에이즈 예방과 치료, 예방백신 개발을 위해 헌신하는 보건의료인과 학자,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후원자들에 대한 지지



HIV감염인의 정서 및 생활안정

HIV감염인
정서지지
프로그램

취미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월요모임, 야유회,
생명나무 정기모임

HIV감염인
생활안정지원
프로그램

긴급의료비 지원,
반찬지원, 김장나눔,
후원자의 밤

샬리홈 소개

샬리홈은 사회로부터 소외 받은 HIV 감염인에게 편안한 휴식과 정서심리적 안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프로그램(쉼터), 주간센터 프로그램, 재가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실어주는 곳입니다.

안내전화 1800-4939



HIV 잘 치료하고 잘 예방하기

write_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최재필



감염인 한분 한분을 잘 치료하는 것이 곧 예방(Treatment as Prevention)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치료제 개발의 초기 치료제의 독성, 바이러스의 치료제에 대한 내성으로 치료해도 충분히 바이러스가 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HIV 치료 약제를 빨리 복용 시작하는 것이, 치료를 뒤로 미루는 것보다 환자의 건강 면에서 낫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줄어든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지금은 카테일 요법의 HIV 약제를 하루 한 알만 복용하면 수개월 내에 바이러스가 억제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진료실 방문하는 당일 치료 시작하기 전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장기 지속용 주사제도 출시되어 두 달 한 번씩 맞으면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HIV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와 소멸되지 않지만 약을 복용해서 혈중 바이러스 수치가 줄어들수록 감염전파의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제로는 아닐 것이라고). 그러나 대규모 연구들을 통해 '감염인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유지하여 혈중 바이러스 200개 이하의 검출 상태를 만들게 되면 콘돔 없는 성관계를 통해 전파시키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른바 '검출불가=전파불가', 'U=U undetectable=untransmittable'라는 캠페인이 WHO, 미국 CDC 등 다양한 국가기관과 NGO에서 받아들여져 과학적 사실로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U=U의 상태는 HIV 치료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잘 치료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성관계를 통해 전파하지 않는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감염 사실을 알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 받고 있는 감염인의 대부분(95%)은 바이러스 (40 개 미

만의 미검출 상태로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알라도 '혹시 모르는'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감염인을 '가상적 위험범'으로 간주하는 전파매개행위금지법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대부분의 감염인이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임에도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예방법 제19조를 재판관 4명 합헌, 5명 일부 위헌으로 최종 합헌(2023년 11월 23일)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의과학적인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와 사회문화적 현실입니다. 과학적 사실로는 HIV 치료를 통해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전파를 예방할 수 있음이 알려졌지만, 사회적으로는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개선되지 못한, 여전히 죽음의 병으로서 에이즈의 시대인 것입니다. 감염인들은 위험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기본적인 자유권을 제한받으며, 부당한 낙인과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부정의는 다층적인 노력을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HIV바이러스의 전파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치료 받는 대다수의 감염인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 같지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있되 검사받지 못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HIV에 대한 검사가 터부시되고 감염 사실이 편견과 차별,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검사는 쉽지 않고 이 경우 병의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2.4배나 많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성 건강을 적극적으로

검사를 통해 챙기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돔은 방어를 통해 체액의 접촉을 막아 HIV뿐 아니라 다른 성매개감염병의 접촉을 통한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방 연구의 기준으로 이도 100%는 아니고 남성 90%, 여성 94%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파트너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 또는 아직 U=U 상태가 아닌 감염인과 만나는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입하거나 당시에 갖고 있어야 하고, 반드시 착용해야만 하고, 찢어지면 노출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예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노출 전(사전) 예방 요법 (PrEP, Pre Exposure prophylaxis: 이하 프렙)입니다. 프렙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HIV 치료 약제를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하여 체내에서 일정 농도를 유지해 놓아 성관계 시 들어온 바이러스가 면역세포에 들어와 자리 잡는 것을 억제해서 증식하지 못하도록 막아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2010년 이후 여러 연구들을 통해 프렙은 성 접촉을 통한 전파를 99%, 약물 사용을 통한 전파에 대하여 74% 예방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 WHO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의 HIV 예방 정책, 감염 제로화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72개 국가에서 프렙 약제가 HIV 예방 약제로 승인되어 250개의 프렙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누적 사용자가 750만명이나 됩니다. 국내에도 프렙 약제는 2018년 식약처에서 허가하였으나 보험적용의 어려움, 비용 등의 장벽으로 잘 이용되지 못하였다가 2024년 11월부터 질병관리청에서 감염 취약군 HIV 선별검사 및 PrEP 시범 지원 사업을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줄어든 부담으로 고위험군 대상자가 프렙을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사업을 통한 감소 효과가 이미 보고되고 있어 검사와 프렙의 사용은 전국 확대를 통해 국내 신규감염 인수를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렙의 사용으로 인해 반대급부로 성병이 늘어나고 무분별한 성 접촉, 위험 행동(risk behavior)을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보상(risk compensation) 이론은 의보건학보다는 교통법규, 정책 연구에서 먼저 다루어졌습니다. 안전벨트나 헬멧의 사용이 과속을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들이 있었으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의보건 영역에서 매독의 치료제, 콘돔의 사용, 인유두종예방접종, 노출 후 예방법이 나왔을 때 같은 우려들이 있었고, 이번 프렙에서도 같은 걱정으로 사용 권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뛰어난 HIV 예방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고위험대상자들의 프렙 사용을 부권적 간섭주의적인(paternalistic) 우려, 종교-도덕적 선입견으로 주저하거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취약한 대상군에 대하여 불의를 행하는 부정의가 됩니다. 이들에게 예방의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 약이 효과를 나타내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른 성매개감염병의 검사 및 발견의 증가를 치료 기회로 보고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방에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발생 이후 발생하는 큰 투약 및 검사 비용을 고려할 때,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 대하여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큼니다. (비용 효과적입니다). 국외에서 고위험군에서 프렙의 사용률이 증가할수록 HIV 감염 발생 사례가 감소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그 성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

write_골드만비뇨의학과의원 원장 민승기



요즘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이다.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는데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령층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 과거 노인, 노령층으로 인식되던 60대부터 70대 남성들이 사회적으로나 스스로 느끼는 정도가 이제는 중년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다.

한편 본인이 비뇨의학과 의사로 현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한 비뇨의학적으로 가장 큰 전환점 하나가 발기부전 약물 출시이다. 이미 국내에 1999년부터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발기부전 치료 약이 상용화되면서 그전에는 발기부전 등의 이유로 성관계를 못 하던 고령층의 남성들이 보다 쉽게 효과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는 기회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과거에 비해 아주 좋아졌고 과거에 비해 문화적 욕구와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년 로맨스', '그레이 로맨스', '실버 로맨스'와 같은 단어들도 생길 정도로 중년 이후 노년 층의 문화가 많이 변화하였다. 그래서인지 여러 건강 관련 의료정보나 통계를 보면 노령층의 성매개감염병이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론 요즘 사회적 흐름에서 보면 청소년기의 점점 낮아지는 첫 성 경험 나이, 젊은 청장년층의 보다 자유로운 성 문화에 의해 2000년 이후 감소하던 우리나라 성매개감염병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얼마 전 여러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웃 나라 일본에서 매독이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 정부 분석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모바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모르는 이성 간의 만남 증가, 사회적으로 더 자유로워진 성문화, 콘돔 사용을 꺼

리는 분위기, 외국 관광객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 등이다. 이런 문제들은 결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증가 추세인 노인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문제 파악과, 관리 방안, 예방법 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성병 통계를 보면 과거와 다른 양상들이 보이고 이러한 양상이나 패턴은 지속해서 변화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성매개감염병은 임질이나 비임균성요도염이 가장 많았으나 요즘은 성기포진(헤르페스), 곤지름(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매독도 조금씩 다시 증가 하는 것 같고,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과거 AIDS) 감염자도 적지만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노인 성매개감염병 증가 원인은 위에서 언급을 드렸고, 관리 방안은 우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수년간 지속해서 한국구세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예방 교육 활동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젊은 층에서는 성매개감염병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웹 기반 건강 정보들을 쉽게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만 의심이 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진료하러 오는 편이지만 어르신들은 다소의 무관심과 정보 부족에 의해 진단과 치료가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요즘 노년층도 많은 단체나 모임들을 통해 사회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편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보다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 지면 좋겠다. 실제 일부 어르신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건강 정보를 보고 계시는데 이들 매체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검증이 안 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확실한 정보를 가진 인력들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많이 확보되면 좋겠다.

실제 교육 내용 중 포함되는 주요 성매개감염병 예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콘돔 사용이다. 물론 모든 성병을 다 예방할 수도 없고 배우자나 신뢰할 만한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상대와의 성관계 시에는 꼭 필요하다. 실제 성관계 시 즉 음경의 질 내 삽입 행위 때는 콘돔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요즘 과거와는 달리 구강성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부분 콘돔 없이 행위를 하는데 이때에도 성매개감염균의 전파가 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즉 신뢰할 수 없는 성관계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당연히 통계적으로도 성상대자 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전한 성생활도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의외로 외성기 점막의 상태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의 전파율이 차이가 크다. 즉 남성 음경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여성 외음부나 질 내 점막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 성매개감염병 원인균들이 더 많

이 침투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외성기 상태를 청결하고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후 가급적 바로 배뇨하고 외성기, 외음부, 질 내부를 가볍게 세척을 해주는 것이 성매개감염 전파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감안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완전한 예방이 어려운 성매개감염병도 있는데 의외로 곤지름 즉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성관계 없이도 감염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은 개인의 면역력, 위생 상태가 또한 중요하므로 항상 꾸준한 위생과 건강관리를 통한 개인 면역력 유지가 필요하다. 한편 매우 드물지만, 아직도 음, 사면발이 같은 감염도 진료 시 가끔 볼 수 있는데 콘돔으로도 예방이 안 되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다중 이용 시설에서도 감염될 수도 있어서 조심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사회적 여러 요인에 의해 증가하는 노인 성매개감염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강의 모니터링을 마무리하며

write_박재현(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가장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기관이 구세군 보건사업부이다. 전문강사진도 계속 보강되어 이제 명실상부한 질병 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에이즈와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질병 자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수방법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수기술(teaching skills)이 요구된다. 교육과정과 관련한 지식은 연수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반면, 교수법과 관련된 영역은 단순히 지식을 가진다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수활동을 수행해 보면서 실제적인 맥락을 경험해 보아야 하므로 강사의 개별적 노력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이에 구세군 보건사업부에서는 객관적 평가와 체계적 피드백을 통한 교수능력 향상을 위

해 마이크로티칭(micro teaching) 기법을 도입하여 질병 예방교육 강사들의 역량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원래 마이크로티칭은 교육을 실행하는 강사들이 실제 교육의 상황을 축소하여 연습하고, 동료 강사나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교수기술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명칭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교수(teaching) 장면을 미시적(micro)으로 관찰하기 위해 교육장면을 녹화하여 분석하며, 분석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강점과 보완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구세군 보건사업부에서 실시한 강사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축소된 형태의 강의 시뮬레이션 형식이 아닌,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그대로 녹화하여 더욱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별도로 구성된 평가 루브릭(rubric)을 통해 객관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였

다. 루브릭은 원래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인 기준을 제시하는 도구를 의미하는데, 성취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물을 정의해 놓은 것이다. 이를 마이크로티칭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형하여 질병 예방교육 강의 모니터링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별도 개발하였다.

마이크로티칭은 말 그대로 교수활동에 대한 평가이므로 교육의 시간적 진행순서에 따른 구성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분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교육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업의 전개단위인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를 기준으로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핵심 평가요소를 제안하였다. 도입부의 경우 주의집중 및 강의목표와 관련한 평가요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개부는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의 활용, 교육자료 및 매체의 활용, 주요 학습내용에 대한 설명을 학습자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요소가 구성되었다. 종결부는 교육내용의 요약 및 정리, 학습목표 달성의 확인을 위한 평가가 주된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드는 강의 모니터링에서는 기존 루브릭을 개선, 보완하여 더욱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수행에 대한 정량적 측정을 위한 항목뿐만 아니라, 정성적 측면에서도 강사 개인별 강점과 약점을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질병 예방교육에서의 교수활동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마이크로티칭은 해가 거듭될수록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의경력이 쌓일수록 모니터링에서 약점으로 파악되었던 요소들이 점차 보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교수기술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강사들은 자신의 강점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수 강사들이 다수 발굴되어 동료 강사들의 교수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어, 구세군만의 '함께 성장하는 질병 예방교육 강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신입 강사진들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일정 기간 교수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한계를 경험하기 마련인데, 구세군 보건사업부에서 실시한 마이크로티칭은 촬영이라는 준비과정에서부터 강사들이 자신의 교수활동 장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교육에 대한 성찰(reflection)의 계기를 제공하여 강사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강사연수에서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발굴된 우수 강사들과 동료 강사들이 함께하는 교수법 향상 세미나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신입 강사진들은 기존 강사진으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적용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 돌이켜보면, 마이크로티칭은 개별 강사들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우수한 강사진을 발굴하는 중요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 피드백과 더불어 동료 피드백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축적해 온 마이크로티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고도화된 루브릭과 분석 도구들을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굴된 우수 강사진이 교수기술에 대한 멘토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사들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배움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질병 예방교육을 수행해 온 구세군 보건사업부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기대되며, 전국에서 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나고 있는 강사들이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을 통해 사랑의 교육적 실천이라는 고귀한 미션을 잘 수행해 주시리라 믿는다.

2024년 주요활동 - 첫번째 이야기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편견차별 해소를 위해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전국 각 지방별로 에이즈 예방강사를 양성하여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고자 3월 18일(월)~20일(수)까지 구세군빌딩 12층 세미나실에서 양성교육을 진행하여 수료자 11명을 배출했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강의시연 평가

예방강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현장에서 강사로 역량을 검토하고 강사로 위촉하기 위하여 6월 11일(화), 6월 24일(월) 양일간 구세군 천안교회에서 강의시연 평가를 진행하여 6명의 강사를 위촉했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에이즈 예방교육 전문강사로서 교육적 소양을 갖추며, 에이즈 및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을 위한 최신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예방교육 강사로서 강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9월 6일(금) 구세군빌딩 12층 세미나실에서 보수교육을 진행하여 2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편견차별 해소를 위해 144회의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을 주로 소년원, 준법지원센터, 청소년센터, 중고등학교의 청소년 및 노인복지관의 어르신 총 12,686명에게 제공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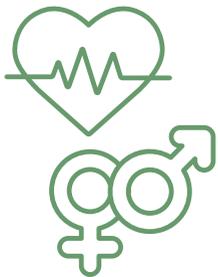
에이즈 예방 전문강사 모니터링

강사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13명 강사의 교육을 촬영한 후 해당 영상을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였습니다. 모니터링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된 보고서를 해당 강사에게 전달하여 다음 교육 시 보완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 캠페인

노인의 성과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및 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건강한 성(性), 백세시대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지역 노인복지관의 어르신을 373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연계기관: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



청소년 예방교육의 사명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후기



**강사님! HIV바이러스가(인체 밖에서는) 약한 존재였어요!
강사님! HIV바이러스가 모기로는 안 걸리네요?**

2018년 에이즈 예방 전문가 과정 수료하고, 코로나를 지나 지금까지 약 7년 정도에 많은 청소년들을 예방 강사로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었고, HIV에 대한 흥미가 있었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 때 긴장하며 주머니 사탕을 가득히 넣고 청소년들을 만났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학교마다 상황적인 이슈들이 있어 예방교육을 신청했던 보건 선생님들과, 이슈에 주의를 주시는 교감선생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쩌면 저와는 다른 세대에 사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정보전달과 인식 전환

예방교육을 나가면 첫 번째 반응은 에이즈가 무엇인지, HIV가 무엇인지 궁금하기 보다는 성교육이라는 시간에 대한 기대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보건 시간에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 인식이 있는 편이지만, 고등학교는 입시로 인해 선택적인 보건 시간으로 기본정보 및 성 지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성매개 감염에 대한 부분부터 HIV 감염에 이르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몇 년 전, 청소년도 콘돔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전달에도 생소했던 아 이들이 많아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강사들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포장된 책임

강의 현장에서 정확한 정보전달과 더불어 전달 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과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상업적 또는 왜곡된 성에 대한 정보로 잘못된 즐거움이 앞서서 시대입니다. 이것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중

요한 것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에는 책임과 생명이 연계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즐거움을 쫓아 생명과 책임을 잊지말 것 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진심 어린 조언들을 잔소리처럼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들어주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너무나 중요한 예방 강의 활동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계속 찾아갈 예정입니다. 선진국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전국민에 있어서 감염인이 적지만 연간 천명이 넘는 신규감염인이 발생하기에 위험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비단 성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개방된 성 문화로 인한 위험성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넘어온 상태입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강의 활동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강사_구세군인천영문 이영섭 사관



예방! 행복의 첫걸음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후기



나: “안녕하세요.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감사입니다~”
어르신: “에? 그게 뭐 시래요 성 뉘시기 병 교육이라고라...”

교육이 끝나고 나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오셔서 사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합니다~ 신청하세요~ 하면 많이들 신청 안 하세요. 비뇨기 관련 교육 이라고 하면서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을 살짝 엿어서 광고하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십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나가면 대부분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저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처음 구세군의 보건사업부 사업, AIDS/HIV, 성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의 전문 강사 교육에 신청하세요~ 할 때 “에? 그게 뭐 시래요??” 이랬던 저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사는 일상에서 흔히 나는 아니야~ 라며 그 어떤 사건, 사고에서 나 자신만은 예외 시키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활 속에서도 로또? 는 당첨되고, 하루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사에서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 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 겨울이 되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 등은 내일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성매개감염병 예방 강사로 사역하는 것도 사실 한순간의 선택으로 평생 질병의 고통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면서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큼니다. 구세군의 사역이 그래서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 이라는 것이 많이 열려있지만 그럼에도 어르신들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사람이 산부인과에 갔다 오거나, 비뇨기과에 가는 것을 대 놓고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직 음지의 영역이기에 첫 발걸음은 에? 하고 들어오셨던 분들! 그러나 한 시간여의 교육을 들으시며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는 교육, 새로운 것을 아는 시간이 되었다며 말씀해 주실 때 참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구세군 보건사업부의 예방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혼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예방 교육을 통해 생활이 아름답게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강사_구세군월성노인주간보호센터 김희경 사관

2024년 주요활동 - 두번째 이야기

HIV감염인의 정서지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

HIV감염인 정서지지 프로그램

HIV감염인의 정서를 지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 6회, 연인원 61명



월요모임 (성경공부 및 역사 탐방) 34회, 연인원 396명



생명나무 아유회 37명 (용문산)



생명나무 정기모임 (월 1회 예배) 8회, 연인원 275명



HIV감염인 생활안정지원 프로그램

긴급의료비 지원

면역력 약화와 HIV로 인한 기회질환 발생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부족해서 올바른 진료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HIV 감염인을 위해 9명에게 치료비를 일부 8,00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찬 지원

혼자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HIV감염인에게 7호에 걸쳐 연인원 280명에게 반찬을 제공하였습니다. (7,10월 - 구세군아현교회에서 물품 후원)



김장 나눔

김장철을 맞아 취약계층 HIV감염인 및 관련 기관 120명에게 김장 10kg씩을 나눠드렸습니다.

성탄축하회 및 후원자의 밤

HIV감염인과 후원자들의 만남을 통해 감사의 자리를 11월 15일(금)에 마련하여 한해를 돌아보는 영상 시청, 합창, 시낭송, 찬양, 공동식사, 생일축하, 행원권 추첨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을 보다듬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요



write_구세군 위기상담센터 양향숙 상담사

저는 현재 구세군 위기상담센터에서 상담사와 구세군 보건사업부에서 에이즈 예방교육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양향숙 상담사입니다. 제가 22년도 처음 구세군 위기상담 센터에 입사했을 때 많은 남성분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매주 열리는 감염인 정기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 센터에서 일하기 전에는 에이즈나 HIV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던 저로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관님과 직원분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인사하시고 얘기 나누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경계심이 사라지고 일상에서 만나는 옆집 아저씨와 같이 친밀한 느낌으로 오고 가며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세군보건사업부에서 매년 진행하는 에이즈 예방 강사 양성 교육을 받게 되면서 감염인분들과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활동은 감염의 위험이 없으며 편견과 두려움으로 인한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차별이 감염인분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세군 위기상담센터에서 1년 이상 상담을 하고 에이즈 예방 강사 양성 교육을 수료한 상담사들은 감염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 또한 감염인분들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만난 분들은 셀리홈 센터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의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셨는데 상담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상담이 처음인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내담자는 20대에 감염이 되어 현재 30대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잠시 셀리홈에서 도움을 받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셀리홈의 기관장님의 권유로 처음으로 상담에 들어왔을땐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지만, 상담사와 라포가 형성되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상적 이야기부터 자신의 삶에 대해 나누면서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자신의 장단점과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도움을 받았다고 상담을 마치면서는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긍정적 자원은 더욱 발견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원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세군 위기상담센터는 구세군 보건사업부와 협력하여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지원하고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감염인분들의 심리적 돌봄 및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진행되었던 미술치료 집단상담에서는 원예치료를 이용한 자신의 마음돌봄 뿐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미술로 표현하고 나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담에서 나는 자신의 삶과 내면의 모습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수용 받고 내면의 진짜 마음을 표현할 때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삶의 힘과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로서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이러한 내담자와의 진솔한 만남이 이뤄지고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과정을 함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사로서 개인적인 바람도 앞으로도 감염인분들이 더욱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상담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든 길도 친구가 있고 누군가 함께 가주면 나아갈 수 있듯이 구세군보건사업부와 구세군 위기상담센터를 통해 마음을 보듬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뜻이 이뤄질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한 시간



write_어부넷 박미정 목사

여행을 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길을 잃으면 당혹스러워 찢찢매다가 이내 지나가는 행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다가 찾던 곳을 찾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땐 또 길동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함께 길을 찾으면 당혹스러움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구세군 영문에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그러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집순이가 서울이란 곳을 여행하러 가는 길이고, 몇 번 실제로 길을 잃어서 그러하고, 도착하면 인생의 길동무가 있어 그러합니다.

시청역에서 내려 구세군 서울 제1 영문까지 걸어가는 덕수궁 돌담길이 예뻐서 덕수궁과 풍경들을 만나면 너무 좋은 시간이지만 또 지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상기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도착하면 현재 교회의 고민을 만나고 거기서 돌아오는 길 미래의 대안을 만납니다. 참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자리에 앉은 그 귀한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 놀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찬양이 우렁차서 그러하고 두 번째가 눈이 초롱초롱하여 그러하고 끝까지 예배 자세가 흠어지지 않아 그러합니다.

얼마 전 환우분들과 미술 치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동화책을 읽고 자신의 이름을 만들레 대신 넣어서 읽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나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그중 머리가 허연 나이 지긋한 분께서 '저는 살면서 제 이름을 처음 불러 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저 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 고군분투한 삶에 치여 스스로

를 잊고 지낸 것은 아ნ가 싶습니다. 우리가 존귀하다는 정체성을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부르며 고단한 삶 가운데 지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보듬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주 대해야 할 때 더 나은 삶으로 할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했던 모든 시간 그것이 예배 시간이든 미술 치료 시간이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존귀하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항상 깨어 있는 시간이 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을 그린 깨어 있는 시간 때문에 내년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성장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저 우리가 기뻐했다면 저는 목사로서 남을 기쁘게 해주는 일에 시간을 보냈고 꼭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기뻐하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였으니 우리는 희로애락 모든 시간을 통과하여 감사의 시간을 만들었고 앞으로 더 만들거릴 것이라 기대하며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소망하려 합니다.



구세군과 함께한 나의 이야기 write_이민석



구세군과의 인연은 참 오래된 듯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사관님, 직원분들 언제나 따스하게 인간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

정신적으로 힘든 우리에게 매주 월요일 사관님과 함께하는 성경공부는 적지 않은 유익을 주며 마음의 양식을 가져다 준다. 때로는 은혜받는 찬송가로 그리고 함께 나누는 성경구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심어준다.

매달 모이는 구세군 생명나무 정기모임 동료 PL들을 보며 안부도 전하고 예배를 통하여 성경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또한 말씀으로 마음을 정화한다. 매달 생일자를 축하하며 선물도 받는다. 모임 후 맛있는 식사와 함께 밑반찬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즐거움 얼마나 좋은가?

또한 가을이면 매년 버스를 대절해서 모두 함께 야외로 가을 소풍을 다녀온다. 개인적으로 가기에는 멀기에 가을 야외회는 우리들에게 힐링과 함께 즐거움을 준다.

그동안 다녔던 여러 곳들을 생각해 본다. 양평 용문산, 민속촌, 남이섬, 아침 고요수목원등등. 새록새록 추억이 묻어난다. 해마다 가을에 가는 야외소풍은 우리들에게 휴식과 맞거리로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얼마 전에는 1년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송년모임을 함께 하며 식사를 함께 나누는 후 정말 다사다난했던 구세군 행사 보고와 지나간 일들을 회고하며 2024년을 돌이켜 보았다. 함께한 많은 PL들을 보면서 시간이 덧없이 흘러감을 느낀다.

**구세군이 지향하는 표어, 모토라 할까?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정말 절실한 단어들이며
우리가 실천할 덕목들이다.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구세군의 손길은 내게
많은 깨달음과 함께 실천을 준다.**

**참으로 구세군은 배울 게 많다.
예전에는 흔히 세상을 구하는
군대라 생각했거늘...**

겨울이 되면 구세군은 김장 김치도 택배로 보내주어 우리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 예전 코로나 이전 때는 모든 PL들이 함께 모여 김장을 함께하며 웃고 떠들며 나누는 기억, 추억들이 생각난다.

해마다 12월이면 사랑의 온도 시작과 함께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시작된다. 그동안 해마다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 자선냄비. 광화문에서, 종로3가에서 세종문화회관 옆에서 잠실에서, 지금은 경복궁역에서 종을 치면서 모금 활동을 하면서 내 자신이 더 많이 배운다. 어린 학생들 고사리손으로 동전을, 지폐를 자선냄비에 넣는다. 오히려 예쁘게 꾸며 입으신 선남선녀는 거의 지나치지만 단아한 아니 순박하게 입으신 중년의 신사, 여사님들, 연륜이 묻어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지나치지 않고 돈을 넣어 주신다. 또한 격려와 함께 수고한다면서 때로는 5만원권도 넣어 주신다.

얼마 전부터는 보건사업부에서 의료비 지원도 해 주시니 보혐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되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치과 지원까지, 구세군의 손길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구세군 보건사업부는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새 봄을 위한 기도

write_장이환

올 봄에는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미소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저의 언어에 향기가 있게 하시고
저의 행동에 겸손이 있게 하소서

저의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을 향한 이해와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주셔서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게 하시고

받으려 하기보다는
언제나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은 기억하고
주는 것은 곧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목마른 이들에게
샘물 한잔의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자를
스쳐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외로운 이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이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며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바라보는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찬미가 들꽃의 향기처럼
세상에 가득 퍼져 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그려진 그림들이

잠드는 시간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구세군 역사박물관 탐방기

write_유기훈



1908년 로버트허기득과 애니 존슨 사관 부부가 한국에
파송된 구세군 선교사입니다.

1909년 구세 신문(현, 구세 공보)을 발행하고 선교와
해외정보와 선진농법을 전파하였습니다.

1928년 구세군 사관학교로 건축된 박물관은 서울특별시
기념관 제20호로 선정된 근대건축문화재로서 정동의
문화역사 명소일 뿐만 아니라 건축 연구와 체험학습의 장
소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100년이 넘는 성
격과 찬송가를 비롯한 태극기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
해서 구세군의 독립운동기는 전시되어 있었다.

2층은 구세군 자선냄비 체험관과 악기전시관과 영상미
디어 관에서 구세군의 역사와 선교활동에 관한 내용을 시
청할 수 있었다. 구세군은 군대식 직책을 사용하고 브라스
밴드는 금관악기를 사용한다. 금관악기는 영국의 하층민
들이 주로 사용하는 악기로 우리나라로 치면 사물놀이 풍
물패처럼 고된 노동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

양회진 선교사묘역은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에
서 관리하고 417명 15개국의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과 가
족이 안장되었다. 이곳도 황선엽 부통령 사관님이 함께 하
시면서 각 선교사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한국
개신교 발전에 순교하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
들을 알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구세군에 대해 새롭게 인식이 되었고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사회개발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 및 기부 촉진
신앙전파의 사명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
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선냄비의 종소리는 12월 한 달도 울리지 않지만 도움
을 받은 사람과 도움을 준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생 따뜻한
이 이어질 거라고 이번 탐방을 통해 강한 울림이 왔다.

12월이 되면 쌀쌀한 날씨와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종소
리 흰 눈이 생각난다. 구세군 보건사업부를 알게 된 지도
20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구세군 보건사업부 행사와 정기
월례 예배는 참석하고 밥 대접을 받고 반찬 기부를 받고
집으로 오는 과정으로 구세군에 대한 인식을 크게 하지 못
했다.

이번에 구세군 역사박물관 탐방과 선교사들이 순교한
합정에 있는 양회진 외국인 선교묘역을 다녀와서 구세군
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어 매우 좋은 경험을 하였다.

구세군 역사 박물관장님(황선엽 부통령)이 우리를 반갑
게 반겨주시고 2층으로 되어 있는 박물관을 보면서 문제
풀이를 주시면서 찾아가면서 구세군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시고 나중에 함께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 주셔서 구세군
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었다.

1층 전시 공간에는 선교역사관, 독립운동가 순교자관,
사회봉사 나눔관, 세계 선교관이 있다.

구세군은 마음이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사명
으로 1865년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 자선 단체이자 교단입니다. 구세군의 목표는 가난
한 사람들과 소외된 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회 정
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로 본 2024 구세군 보건사업부

2024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전후설문조사 통계 보고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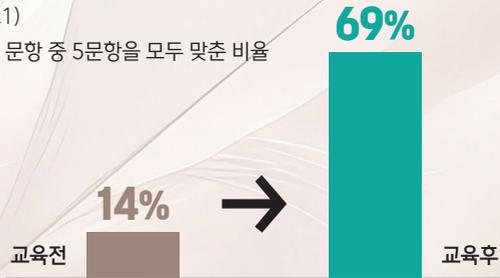
설문인원: 1,043명(남자:735명, 여자:308명)

지표	지표	목표	결과	달성률
지표1	HIV/AIDS에 대한 지식 정답률	75%	69%	92%
지표2	HIV/AIDS에 대한 지식 변화율	23%	27%	117%
지표3	HIV/AIDS에 대한 태도 변화율	36%	37%	103%
지표4	교육만족도	4.5	4.5	100%

2.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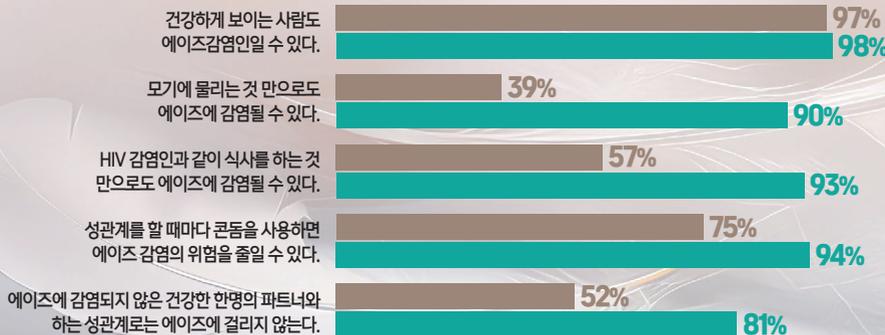
■ HIV/AIDS에 대한 지식 정답률(지표1)

에이즈에 관한 5개의 기초 지식 측정 문항 중 5문항을 모두 맞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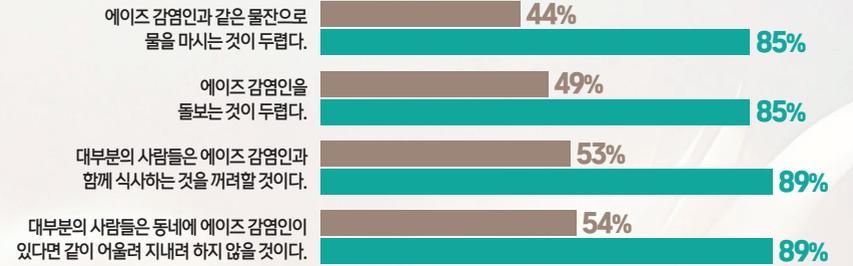
■ HIV/AIDS에 대한 지식 변화율(지표2)

■ 교육전 정답률(%) ■ 교육후 정답률(%)



■ HIV/AIDS에 대한 태도 변화율(지표3)

■ 교육전 정답률(%) ■ 교육후 정답률(%)



■ 교육 만족도(지표4)



- 문항. - 강사가 강의에 대한 열의가 있었으며 성실하였다. - 강의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 수강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 이 강의를 수강한 것에 만족한다.

2024년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설문조사 통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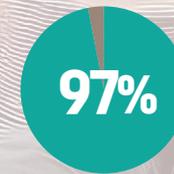
1. 개요

설문인원: 366명(남자:135명, 여자:231명)

지표	지표	목표	결과	달성률
지표1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지식 정답률	95%	97%	103%
지표2	성매개감염병 검진 수검 인지율	79%	96%	120%

2. 평가결과

■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지식 정답률(지표1)



- 문항. - 성관계(성접촉)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 성매개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치료는 반드시 성 상대자와 함께 받아야 한다.

■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수검 인지율(지표2)



- 문항. - 건강을 위해 검진(성매개감염병 포함)을 받을 생각이 있다.